

대행 스님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질문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 근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놓고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습에 이끌려 가게 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그래서 부처님께도 모든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다 되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게, 안에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모두 놓지 않는다면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하나 자기 그 모든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 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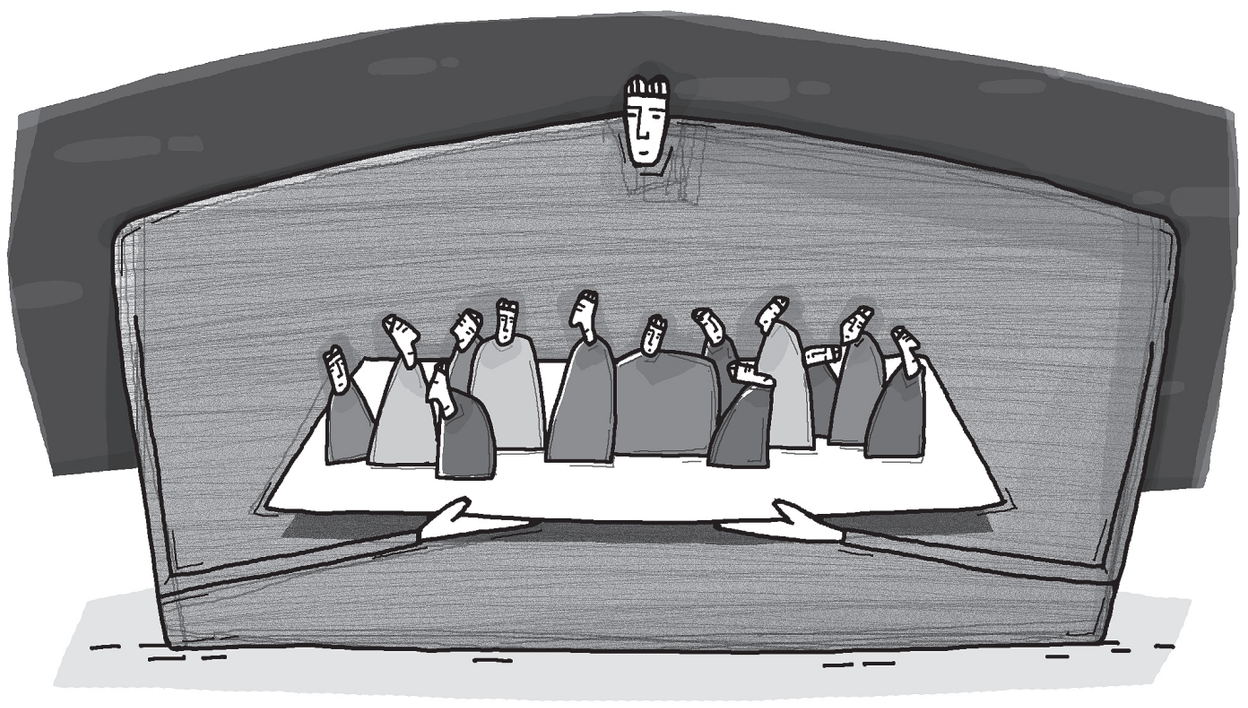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수십억 마리 중에, 즉 말하자면 육신 속에서는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으면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아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것을 카세트로 비유한다면 카세트에 먼저 넣은 것은 또 나중에 넣은 것에 의해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악업 선업의 그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온 것을 바로 그렇게 놓고 간다면 그렇게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니,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 항상 비니 어느 거라도 담을 수 있는 거고, 담으면 없어지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 죽음의 의미

질문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보면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요.

답변 첫째는 모든 것을 한데 뭉쳐서 맡기고 놓는 반면에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의 '부'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기는 '자'고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자기의 '부'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은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내려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즉 말하자면 뜬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함과 같이 사람도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또는 형제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그러면서, 짐승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이 수억겁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잠깐 우리가 사는 거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된다. 또 놓고 거기에 맡기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쉬는 게 없이 찰나에,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도리를 완전히 배워서는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천백억화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무조건 응해 주고 건져 주고 사랑해 주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도리, 즉 말하자면 내가 사람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안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 나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찰나에 들어갔다 한 찰나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찰나에, 둘이 아닌 까닭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한 찰나에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가 됐다가 내가 되고, 내가 됐다가 네가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이 블랙홀 이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 번 그렇게 뭉쳐 놔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약에 완전히 안다면 살아서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세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